



안양시민의 '허파' 병목안 수리산 산림욕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475번지(안양동)에 자리 잡은 병목안은 마을의 지세가 흡사 병목을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마을로 들어가는 초입은 좁지만 일단 마을에 들어서면 골이 깊고 넓은 모양새여서 오래전에 병목안이란 별칭이 생겼다고 한다.

이곳은 계곡이 길고 경치가 수려하며 맑은 물이 흘러내려 늘 찾는 사람이 많다.

병목안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왼편에 보이는 산이 수리산이다. 해발 489m로 그리 높지는 않지만 빼어난 산세를 자랑한다.

X자 형태로 뻗은 능선을 따라 여러 산행코스를 이루는데, 산세가 관머리와 같다 해서 붙여진 관모봉이 있다.

관모봉에서 바라보는 안양 시가지는 넓은 벌판을 보는 느낌을 준다. 벌판을 채우는 크고 작은 빌딩들과 도로가 어우러져 안양의 발전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수리산 산림욕장의 제 1·2·3전망대는 장소별로 각기 조망이 달라 산행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특히 제1·2전망대의 목재 전망데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발 지압장, 그리고 연장 25m의 출렁다리와 임간교실이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다.

백영약수터 등 10여 개의 약수터는 시민에게 맑은 약수를 공급한다.

병목안에는 수리산을 상징하는 징표이기도 한 병 모양의 석탑이 명물이 됐다.

양쪽에 조화롭게 병 모양으로 쌓아 올린 탑은 주변의 쓸모 없는 돌무더기들을 이용해 자연의 조화와 인공의미를 살린 수리산 산림욕장의 명물이자 이정표이기도 하다.

백영약수터 오르막길을 간다면 누군가 정성 들여 쌓아 올린 돌탑을 눈여겨보자. 아이들과 함께하는 산행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어찌면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돌탑이 될 것이다.

안양시민의 명실상부한 휴식처가 된 수리산은 계절별로 독특한 풍미를 내뿜어 산림욕 하기에 최적의 장소로서 손색이 없다. ●



소신의회 | 실천의회 책임의회 | 감동의회

